

함께가는 여성

2007.5-6 www.womenlink.or.kr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
민주역사기행

민주ing

이런 저런 이야기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지역여성정책위원회 -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택
17가구주택국민운동을 아시나요?

쟁점과 현안

남성교사 할당제 도입, 누구의 욕구인가?
지속가능한 빈곤을 강요하는 한미FTA



이효재배
2007 웃어라, 여성! 전국여성
팔씨름대회



2007.5.6

02 민우in

02 이런 저런 이야기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 _ 편집부

10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_ 은날

12 지역여성정책위원회 -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택 _ 김인숙

13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아시나요? _ 정은숙

14 민우칼럼 창 ● 동물의 왕국? 소비의 왕국! _ 정윤수

16 민우스케치

17 연재기획 I ● 자매애는 있는가

18 수다좌담 - 여성들 간의 차이, 그리고 소통에 관하여

23 자매애, 당위와 현실사이에서 지혜찾기 _ 이오

25 연재기획 II ● 민우역사기행 - 1988년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 _ 권미혁

29 쟁점과 현안

29 남성교사 할당제 도입, 누구의 욕구인가? _ 신기루

32 지속가능한 빈곤을 강요하는 '한미FTA' _ 이원재

34 국제통신원 ● OARS, 빈곤문제와 가정폭력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_ 한설아

36 평등 사무실에서 ● 편식의 즐거움 _ 먼지

38 모람풍경

38 그 얘기 엄마 잘 있겠지? _ 임계재

40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_ 이은숙

42 생협이야기 ● '행복중심'으로 반포에 서다 _ 구명숙, 박영수

44 모람활동 ● 우·행·가의 베트남 여행이야기 _ 수달, 여진

46 민우알림

46 지부소식

48 독자마당



이런 저런 이야기 그리고 20주년 기념행사

민우회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가 5월 13일,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치러졌다. 평등과 평화를 느끼는 코스가 있는 걷기대회, 다양한 부스행사와 전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즐겁고 신나는 문화공연. 300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 즐긴 축제였다. 사건이 있는 후에는 항상 '이야기'가 남는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화자에 따라, 경험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다. 모자이크처럼 짜 맞추어지기도, 서로 모순되고 어긋나기도 하며 풍성하게 사건을 재구성하는 '이야기들.' 이번 행사 스케치는 그런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들'로 구성해 보았다.

첫 번째 이야기 _ 신입, 투덜대다

한량 신입의 좌절

다라 ●

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시간은 5월 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5월 13일 8시부터 1시. 차곡차곡, 또는 열기설기, 혹은 우왕좌왕(—) 쌓인 몇 달간의 준비와 노력이 그 5시간 동안 아름답게 화(火)했다... 그 불꽃이 정말 아름다웠는지(또는 그런 불꽃이 정말 일기는 했는지)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나 상근활동 7개월 차인 나에게는 무엇보다 그 행사가 끝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끝났다...끝났다...끝났다...'를 되뇌어 봐도 왠지 실감이 안 나고 괜히 만사가 귀찮고 힘든 것이 5.13의 후유증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지금 이 글은 뭐랄까... 민우회의 괴력적 스케일에 질린 신입의 살풀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이랄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의 이발사 심정이라고 보면 되겠다.) 20주년인 만큼 더 풍성하게, 더 의미있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야 누군들 다르겠냐마는 문제는 그 바람이 몽게몽게 피어올랐다가 태산(山)같은 일거리로 활동가들 앞에 사뿐히 내려앉았더라는 것이다. 일과 휴식이 조화(기준은 묻지 말라)를 이룬 여유만만한 직장생활을 꿈꾸던 한량기질 다분한 신입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좌절이었다고나 할까... 뭐, 좋게 말하면 근무 태도를 새로이. 했다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헤라 디야 허이꺼이~~ @@ **암**

다라 ● 그래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눈물나게 좋은 봄날에



봉달 ●

5.13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근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무렵, 한 활동가가 쓴 글이 모람터널기 게시판(회원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모두들 겪고 있지만 소리 내어 말 할 수 없었던, 실없는 농담으로 흘려버리거나 혼자 깊은 한숨으로 덮어두던 그 무엇을 만져주는 글이었다. 회원들도 친구들 앞에서 민우회 콘서트 티켓을 꺼내면서, 혹은 더 옛날 딸기잼이나 유자차를 지인들에게 권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까. 여러 회원들과 나누고 싶어 이 곳에 소개한다.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때가 있다. 눈부신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사람이 많은 복잡한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다.

얼마 전 한 상근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딱 찬 버스만 왔다고 한다. 그래서 버스 몇 대를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상근자를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 했다. 별 이유도 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일이 요즘 많다고 했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 96년 나는 대학 5학년이었고 총학생회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 난 졸업과 운동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헤매고 있다가 뒤늦게 총학생회에 결합한 상태였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늘 혼란스러웠지만 누구와도 터놓고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학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학년 후배가 시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후부터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현실도 무서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무서웠다. 진심으로 지지받고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도 울고 집회에서도 울고 플래카드 앞에서도 울었다.

내 현실이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인정받고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자꾸 왜곡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나는 종종 무너지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함께 견뎌낼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때 그 무너짐은 주체할 수 없어진다.

오늘 너무 파래서 눈부신 하늘 때문에 눈물이 날 뻔 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그 상근자의 마음이 함께 떠올랐다. 지금 민우회 상근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살며시 생각이 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걱정도 같이.

20년 동안 우리는 진심으로 여성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 힘으로 운동을 하고 있음도 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자꾸 사라질 때가 있다. '민우회가 이번에 20주년

인데, 집 마련 기금모금을 해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을 할 때 그렇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말해야 조금 덜 상처 받을까 생각할 때 그렇다.

나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이 말을 하는 게 자꾸 '뭔가를 구걸하는 느낌'이 드는 걸 어쩔 수 없다. 나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런다.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수도 없이 마음을 다쳐야 한다. 수많은 기업을 만나고 그 기업들한테 퇴짜를 맞는 대표 선생님들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연락 한번 못 하다 갑자기 전화하여 어렵게 이 말을 꺼내야 하는 상근자들도 그럴 것이다.

결국 말도 못 꺼내보고 끊어버린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꺼낸 말에 아무 답이 없는 친구를 원망하다가, 내 활동이 그 만큼의 신뢰도 주지 못했음에 자책하다가, 이런 걸 자꾸 해야 하는 내가 초라해지다가, 집도 없이 가난한 민우회에서 일하게 된 걸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점점 구겨져 가는 내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누군가 말을 걸려 하면 가만히 좀 내버려 달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민우회 활동을 하면서, 여성운동을 하면서 힘든 일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버거워하는 일은 단지 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다만 더 괴로운 건 내 자존감에 생채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기 때문일 거다. 나의 '자존감'과 타인의 '자존감'이 서로 교감하고 함께 높아지는 활동을 꿈꾸는 내겐 더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뭘까? '인정'과 '지지'가 아닌가 싶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의심이 들 때마다 아니라고 말해주고, 내가 작고 초라해 질 때마다 넌 소중한다고 말해주고, 생채기가 생길 때마다 함께 아파해 주는. 내 옆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들이 내게 주는 인정과 지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아주 힘들기도 하지만, 민우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가슴 벅찬 경험이기도 하다. 모두들, 괜히 화장실에 숨어 남몰래 눈물 닦지 말고 그 괴로움과 속상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자. 그리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자. 서로서로. **ㅁ**

2007. 4. 30. 봉달



D-3, D-2, D-1, 여기는 평동 사무실

행사 날이 다가오면서 평동 사무실은 작업장으로 변해 갑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을 때는 몰랐던 활동가들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는 시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꼼지락 꼼지락 한 끝에...



이것이 탄생했습니다! 두둥~ 보셨나요? 견기 코스 초입에 펼쳐져 있었죠.



글자 하나하나를 자르고 오려서, 청소년 부스 게시물이 만들어지고,

(오린 글자를 전부 한 봉지에 담아 두는 바람에 문장 만들 때 무지 애먹었다는... 게다가 분명 써놓은 대로 오린 후, 써놓은 대로 문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글자 '깨' 과 'L' 이 남는 미스터리가 있었더랬죠 ^^)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건 옳지 않아요~' 10시면 문을 닫는 '달개비 공방'의 숙련된 장인 달개비. 그러나 행사 직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방 운영시간이 연장되고야 말았다는데... 수많은 게시물이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5월 13일! 출근시간은? 새벽 2시!!

깜깜한 평화 광장에서 희망조각을 매달고,



사진도 한 컷 우리 상근자들, 너무 예쁘죠?^^



장하구나, 8년차 상근자의 힘!



날이 밝아오고... 민우역사길 만들기를 서두릅니다.



그 와중에 또 찰칵! 아아...예뻐요 예뻐ㅠㅠ

드디어 행사 시작!



민우회 연합 풍물패의 길놀이로 걷기대회가 시작되고 산책길에 준비된 평등·평화 코스를 체험하며 걸었습니다.

일상속의 차별을 생각해 보는 평등 팡팡길을 지나 평등감수성을 체크하는 평등 오름길을 밟아 보고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나무 심장소리 듣기도 체험해 보았지요.



처음에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각 코스를 참여하고 나면 팸플릿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기획이 있었는데, 아... 어린 친구들이 스티커에 그렇게 목숨 걸 줄은 몰랐지요. 안 붙여 준다고 화도 내고... ^^ 결국 무섭게 물려드는 어린 친구들(당치는 웬만한 진행자들 보다 큰을 감당할 수 없어 스티커 붙여주는 기획은 폐기하기로 급 수정 했다는 비화가...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주세요!!”

“비상! 비상! 아이들이 스티커를 향해 몰려든다! 통제 불능! 살려줘! 쉿...!”

–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던 어느 상근자의 외침(진짜?).



예쁜 'minwoo'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으로 걷기 코스 마무리~

평화광장에서는 여러 전시와 만들기 부스,
바닥놀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조각 전시]

민우회의 이사기금을 후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신 사진으로 '희망조각'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본인 사진, 가족, 친구, 애견사진까지!!! 너무나 예쁘고 뿌듯하더군요. ^^



[Her'story 민우 역사길]

['여성운동의 큰 이름 이이효재' 전시]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테리! 이이효재 선생님 전시물은 분명 총 6장이었는데 설치할 때 보니 한 장이 사라졌다는?!(안그래도 어쩐지 이상하다 느끼셨다구요? ^^) 아아...실수를 미스테리화 하고픈 간사한 인간의 욕망이여... ㅠ.ㅠ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희망모자도 만들고, 바닥놀이도 하고, 축하공연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마지막 이야기_ 회원 참관기

신입회원 바다의 내맘대로 후기

바다 ●



서울지역에선 사회를 맡으신 소다,
정윤정 회원님

오늘은 걷기대회 날! 전날 비바람 불던 날씨는 잠잠해져 있었고, 화창하다 못해 뜨겁게 평화의 공원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팀이 새벽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는데 그 몇 달 동안의 수고를 하늘이 치하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도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눈 밑 다크써클을 깊게 드리운 낮익은 상근활동가들이 무전기 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살이 바짝 익어갈 만한 온도 속에서 이효재배 팔씨름대회 서울지역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비공식 새모람 배 팔씨름 대회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호지, 누에, 히로가 있었기에 몰려드는 인파를 헤치고 그들을 응원하러 갔드랬죠. 응원전을 펼칠 찰나! 눈앞에서 히로가 아깝게 넘어가고, 가냘픈 외모의 누에는 2차전 스티커를 가슴팍에 붙이고 위풍당당 웃고 있었고, 콧잔등 땀 송글송글 맺힌 호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비장함마저 감도는 분위기에 압도된 우리는 누에의 선전을 기원하며 웅기종기 그앞에 늘어서 있었으나 순식간에 넘어가는 하얀 누에의 손목~ 아, 아깝다! 결국 새모람이 배출한 선수들은 아무도 16강전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어깨를 한번씩 두드려 주고 자연드림 무공해 쭈쭈바를 하나씩 받아 물고 넌찍한 바닥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16강 시작 전, 랩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실버라이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잠시 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귀여운 몇 가락의 랩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더군요.



왼쪽의 힘쓰는 히로! 그러나 상대의 저 여유만만한 표정...



서울지역 예선전의 모습



축하 공연 - 더 실버라이닝



오른쪽 수줍게 웃는 소녀 에이스! 헤화여고 태권도부 민현선 양입니다.



관중의 환호에 답하는 농구선수 박찬숙님과 멋진 승부를 낸 축구선수 이성주님 (출처-뉴스1)



1위를 차지하신 진주의 서명희님

달구어진 무대 위에서 이어지는 16강전! 어느새 사람들은 무대 바로 밑으로 몰려가 응원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8강전으로 이어지자 귀여운 소녀 에이스를 찍어둔 저는 에이스가 우승할 것 같다며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역시나 4강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모나 이게 웬일...! 결승전이 있기 전 잠깐 잠시 쉬고 있는 소녀 에이스를 찾아가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가까이서보니 주근깨 살짝 찍힌 에이스는 너무나 귀여웠죠.

4강에서는 멀리서 오신 진주여성민우회 회원님들 중에 자매끼리 한판승부가 벌어져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결승전이 있기 전 막간을 이용한 ‘아주 특별한 경기’가 펼쳐졌는데 멋진 여성체육인들과 여성정치인들의 깜짝 경기로 한층 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여성체육인들의 당당하고 순수(?)한 눈빛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승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참가자들을 압도하신 박찬숙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어진 결승전에선 즉석에서 결성된(저를 포함) 팬클럽까지 몰고 다니며 인기몰이 한 에이스와의 한판승부에서 진주에서 오신 서명희님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가자모두 상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하셨다고 하니 이 또한 아름다운 뒷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 팔뚝 바쳐 상금타서 민우회에 기부하는 즐거운 상상을 했었는데 늦어서 참가도 못한 이 게으름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BMK의 등장으로 무대는 멋지게 마무리 되었고 메시지를 담은 박이 터지면서 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수 개월간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민우회 식구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진정 여성을 웃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암**

바다 ● 기타반 etc에서 활동 중인 신입회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비인중 사진사!

※ 이렇게 민우회 20주년 기념행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직장 · 가정생활 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은날 ●

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직장 ·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 혹은 명시화하기 위해서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명 개정,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직장 · 가정의 양립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이 개정안에 담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녀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육아기 아동을 가진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을 놓고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 상 비정규직의 확대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이 제도의 도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

1) 이 글은 지난 2007년 3월 27일 발표한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여성 · 노동계 의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일과 양육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를 1주 15시간~3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실질적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를 법정근로시간의 1/2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개정안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직장가정생활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향은 남성들의 가사·양육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가사·양육 노동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 나아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만을 규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사·양육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 도입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 휴가제도의 휴가기간은 3일로 실질적으로 남성이 출산 후의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기간으로는 매우 짧다. 또한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휴가기간은 배우자의 출산을 보조하고 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5일은 보장해야 한다. 또한 휴

가기간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남성노동자들의 활용률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급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서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노동자가 모두 사용 가능함에도 대체로 여성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남성들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임신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육아휴직이 여성중심의 제도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휴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아닌 별도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한 부분이다.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12월 제정, 1988년 4월 시행, 이하 고평법)은 제정 이후 6차례 개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고평법의 주요한 목적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고평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변경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이라는 이 법 애초의 목적을 경제 발전의 논리로 환원하는 것이다. 고용상의 평등 실현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고용평등 실현과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은날 ● 젊은 날/기쁜 날/좋은 날/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택

김인숙 ●

여성민우회에는 10개의 지부가 전국에서 활동한다. 활동 지역의 크기부터 지부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시기 등도 다양한 민우회 지부들은 상담소, 생협, 지역아동센터, 한부모지원센터까지 너무도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벌이는 사업이니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루 종일 앉아 사업보고만 주고받아도 하루가 빠듯하다. 지역마다 진행되는 사업들은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현재의 알찬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세력으로서, 대중여성교육으로 때로는 지방 개발론자들과의 싸움으로, 때로는 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대안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까지 민우회 20년 역사 속에 지역여성활동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여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의제개발, 운동방법에 대한 부족을 느끼며 이를 민우회 내에서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이야기 되어 왔다. 그래서 2007년, 올해 처음으로 지역여성정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 즉 지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 온

삶의 경험을 명료히 하고 이것에서 우리의 활동의제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많은 지역여성들을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지역민우네트워크 내 하나의 분과로 위치하게 되었다.

시작은 소박하다. 올해는 지역여성운동 사례를 모으고, 지역민우회 활동을 정리해 살펴보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발전시킬 것과 부족한 부분을 도출해 계승, 발전, 보완하는 일부터 시작이다. 올해 목표는 소박하지만 지역여성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선택이 되어야만 한다. 분권과 자치, 생활 속에 여성운동 뿌리내리기,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 만들기 등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힘은 지역여성들의 활동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암**

김인숙 ● 곧 50이다.

민우회의 활동으로 아랫배에 지방층이 두터워졌고 뱃심이 팍 생겼다.

여성이라는 것이 행복해진 50대! 이제는 딸이 사회로 나간다.

내가 겪은 파란을 내 딸은 피할 수 있길 빌었는데,

그 파란으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자각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길 바라게 되었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www.1house.or.kr)
주택투기 근절! 다주택보유 규제! 주거약자보호제도 정착!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아시나요?

정은숙 ●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5%(총주택수 13,222,641호/ 보통가구수 12,490,507가구)를 넘어 서고 있지만, 전체가구의 40% 이상은 집이 없으며, 주택이라 부를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동굴 등)에 방치되어 있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104만여 가구가 자기 집에 살면서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가구이며,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5만3천 가구가 넘는 등 다주택 보유가구 평균 4.6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상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40% 이상이 주거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주거'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주거 안정 실현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투기를 규제하고 거주 외의 다른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수십 차례 이삿짐을 싸야 하고 스스로 노동해서 번 돈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루기 어려운 주거 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4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시작했대! 1가구1주택국민운동을!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댄으로써 집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세제, 금융, 주택 등 각 분야제도에서 무주택 가구는 보호·지원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더불어 국민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동반하는 '1가구1주택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주택이 투기적 용도로 악용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은 그 나라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1가구1주택 협약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 **㉠**

정은숙 ● 열정도 많고,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우리 사무처장!

「어 둠 속의 댄서」, 「도그빌」로 유명한 라스 폰 트리에의 초기 걸작 「유로파」는 모든 길이 차단당하여 어떤 방향으로 뛰어도 여전히 미로 속을 헤맬 수 밖에 없는 악몽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최인훈의 「구운몽」 역시 심야의 도심지 거리를 끝없이 방황해야 하는, 그러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주인공 독고 준의 블랙홀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두 작품 모두 지역은 다르지만, 냉전 이후에 겪어야 했던 지식인의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잘 보여준 작품이다.

만약 요즘의 한국 사회에 대하여 이 작품들을 패러디 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품의 미로, 높은 장막이 쳐진 소비의 감옥,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간에 무조건 몇 초 내에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하는 광고의 세계라고 말하고 싶다.

쾌락과 소비의 천국 테마 파크를 잠시 보자. 서울 강남에 '코엑스 몰'이 있고 그 안에 '아쿠아리움'이 있다. 20세기 공학의 오랜 노하우와 신개념이 축조해 놓은 코엑스 몰은 편리와 효율, 쾌락과 소비를 120%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동선으로 짜여져 있다. 대규모 문화공간의 두 세 배가 넘는 주차비와 입장료가 제 몫을 하리라는 신화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원스톱 솔루션. 그러나 그것은 코엑스 몰을 실체적 존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얘기일 뿐 기나긴 삶의 어느 한 찰나를 잠시 토막 내어 둘러보는 구경꾼에게 있어 그곳은 황순원이 오래 전 단편에서 쓴 바 있는, 출구를 찾아서 원형의 미로를 계속 맴도는 착란 현상(린반데롱)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매우 세련된 소비 감각이 곳곳에 치장되어 있어 내면의 욕망을 애써 숨기지 않아도 될 듯한 안도감을 주는데,

'아쿠아리움'을 한바퀴 돌고 출구로 나서면 황당한 공간 배치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곳은 이제까지 구경한 온갖 물고기들의 모형과 캐릭터 상품이 진열된 곳으로 우선 꼬마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절묘하면서도 당당한 공간 배치다.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 뿐인가. 어느 일간지 사육에 있는 거대한 갤러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곳의 출구는 미술 팬시 매장으로 이어진다. 피해갈 수 없다. 물론 다른 곳에도 매장은 있다. 예술의 전당에도 있고 과천 현대미술관에도 있다. 청와대 뒤의 환기미술관에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출구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이 갤러리는 아예 출구 자체가 매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를 불편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용노 셔츠,

동물의 왕국? 소비의 왕국!

정윤수 ●

백남준 시계, 김창열 노트... 미술 관람에 쏟았던 정성보다 더 지극하고 진지한 시간이 시작된다. 미술품은 한나절의 정신적 드라이크리닝으로 충분했으며 눈앞의 팬시상품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모든 감정교육과 소비성향을 집중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명령의 계기가 된다.

국내 최고의 테마 파크인 에버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우선 입장하기 전에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한다. 무료입장 혜택을 준다는 카드를 제시하고 신선한 기분으로 입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무료입장의 혜택을 입은 어른들은 그 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마련이다. 꼬마들 데리고 몇 번 놀이시설을 타면 그곳의 '자유이용권' 금액을 훌쩍 넘겨 버리는 것이다.

에버랜드의 리프트 역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입구를 지나 온갖 매장이 줄지어 선 사이를 걸으면 장미 정원과 사파리월드로 내려가는 리프트가 있다. 그것을 타면서 잠시 즐거운 감상의 순간을 누린다. 지상으로부터 불과 십여 미터 높이

지만 청량한 대기권에 5분 가량 머물러 이동하는 순간은 잔잔한 별미이다.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서너 개뿐인 너댓 살 꼬마들에게도 리프트는 경이로움을 준다.

그런데 이 리프트가 아래쪽에 도착하면 곧장 캐릭터 매장으로 이어진다. 상식에 입각하여 출구를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장을 통과하시면 출구가 나옵니다'라는 안내문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는 꼬마들을 다독여 바깥으로 탈출하려는 부모들의 고향 소리가 넘쳐나고 부모들은 자식처럼 장난감에 붙어 버린 아이들을 떼어내느라 소리를 지르기 일쑤다. 이처럼 테마 파크는 '환상과 즐거움'을 주는 대신 지갑을 살살이 훑어 버린다. 산만하게 흩어 놓은 듯이 보이지만 테마 파크의 동선은 주도면밀하게 짜여져 있고 사람들은 절묘하게 배치된 공간 구성을 따라 가면서 자주 지갑을 여는 것이다. 테마 파크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소비의 쾌락을 요구하는 현대 문명의 이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칠 전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엘리베

이터 안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관하여 찬반을 다투는 소리다. 안내문을 보니 행정당국의 공고문, 관리사무소의 공지사항, 교양 문화 정보 등을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한 작은 LCD모니터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인데, 그 반대 의견이 흥미롭다.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읽고 있어야 하느냐, 다른 단지들의 사례처럼 그런 안내 말씀 사이마다 인근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 마트의 광고가 끝없이 끼어들 텐데, 집에 올라가는 몇 초 사이에도 광고 문구를 읽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다. 백번 옳은 얘기다. 우리는 지금 울타리를 알 수 없는 광범위한 소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암**



정윤수 ● 문화평론가,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 민 우 스 케 치

● 우행가 특별 강좌, '베트남, 기억의 재구성'

공부해서 여행가는 소모임
'우행가(우리공부해서여행가
요)'에서 여행지 베트남에 대
한 특별 강좌를 열었습니다.
우행가는 오는 7월 드디어
베트남 여행을 떠납니다. 함
께 가실 분은 연락주세요~!
4월 18일 민우회 교육장



● 위풍당당 그녀들의 페달밟기 자전거 교실

나의 몸과 지구를 살리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자전거
교실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별 좋은 토요일 오후 망원유
수지에서 전문가들의 자상한 지도로 진행되었습니다. 6, 7
월은 자전거 번개로 계속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4월 7일, 21일 망원유수지

● 여성민우회 생협 반포매장 '행복중심' 개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여성민우회생협 반포매
장 '행복중심' 이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중심이
지역여성들과의 행복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
원합니다~!

5월 3일 서울 반포동



● 성폭력 상담소의 몸/성 워크숍

성적존재로서의 내 몸의 느낌을
편안히 응시하고 나누고 찾아가
는 시간. 요가로 이완하기, 기억
과 느낌의 방 소그룹 작업, 상황
극하며 놀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19일~20일

● 생식세포관리 및보호에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참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
한 [생식세포관리및보

호에관한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가해 연
구를 위해 잔여난자의 사용을 허용한 이 법안이 여
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
고 법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5월 16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

● 1가구1주택 협약에 참여하는 사회인사 1000인 선언



모든 사람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을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
의 용도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하는
'1가구 1주택 협약'에 시민사회단체인사 1000인이 참여하여 '주
택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1000인 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22일 인사동 남인사마당

자매애는 있는가?

‘자매애’는 여성주의에서 당연한 것으로 혹은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 ‘해방구로서의 여성주의 공동체’를 상징해왔던 ‘자매애’의 이상적 측면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고 활동한 적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민우역사기행

민우회 20년 역사 속으로 떠나는 민우역사기행. 그 두 번째로 1988년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을 돌아보았다. 빛바랜 사진 만큼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밟고 선 땅이 수많은 피와 땀의 언덕임을 새삼 생각하게 한다. 민우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사와 노동운동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기억되는 여성노동생존권 투쟁활동,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과 다시 만나보자.

愛

수다좌담

여성들 간의 차이, 그리고 소통에 관하여

수다참가자 ● 맨발, 원사, 오이, 연필, 오뎅(나중에 합류) / 정리 ● 맨발

남들은 'TGIF'를 외치며 흥분하게 일주일 간 쌓인 피로를 맥주 한잔으로 날리고 있을지도 모를 어느 금요일 늦은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전의 동지들이 평동 사무실에서 뭉쳤다. 한때 민우회에서 상근자로 활동했던 혹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녀들은 처음엔 '자매애'라는 주제에 대해 약간은 뜬금없어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석을 깔아놓으니 의외로 할 말이 많았던 것이었다. 이번에도 줄이느라 엄청 애 먹었다.

'자매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맨발 : '자매애'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부터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까?

원사 : 나는 '자매애'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 룰*, 공*, 생*. 내 안의 버거움이나 내가 제기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을 많이 잡아 줬어. 민우회를 떠나고도 민우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게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지지, 자매애 때문이었던 거 같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

오이 : '이상적인 자매애'라는 것이 나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아. '자매애'라는 이름의 포장에 너무 크고 나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 말이 내게 너무 힘들었어. 여기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매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는데 4명 정도는 회피했고, 2명은 짜증났고, 1명은 "밥이나 먹어!"라고 했어. (하하)

원사 :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감싸 안아야 할 거 같은 게 불편한 거 같아.

오이 : 맞아. 모두 감싸 안아야 할 거 같은 부담감. 그래서 "자매애는 있냐?"고 물으면 "특정인에 대한 자매애는 있지만 '범여성적인 자매애'는 없다"는 게 나의 답이야.

원사 : 나는 (자매애가) 있는 거 같아. 솔직히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하긴 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오이 : 어떤 사람이 그랬어. 자기는 '자매애'라는 말은 싫은데, 평범한 여자들에게 애정이 간다고. 그 여자가 잘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은 있는 거 같아.

연필 : 민우회에서 일할 때는 '자매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그리워지는 거야. 내가 일하는 곳은 여자도 많고 임신을 해도 노동조건이 안정되어 있지만 여성

주의적인 조직은 아니거든. 문화가 너무 달라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 민우회에서는 자기 얘기를 잘 하는 것이 운동의 시작이잖아? 자기 일상에서 과제를 잘 만들어 내는 게 능력이고 감수성인데, 그곳에서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소위 격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는 걸 서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자 동료들에게 자매애라는 걸 잘 못 느끼겠더라고. 지금도 민우회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이번 대담 제목, 유감!

오이 : 이 대담 제목이 '자매애는 있는가? 여성주의자들 간의 차이와 소통에 관하여'잖아? 나는 이 둘이 묶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 오히려 같이 있으면 위험하고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목 자체가 불편해.

원사 : '차이'와 '소통'은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고 그게 만나거나 부딪치는 건데 자매애와 같이 있을 때는 차이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섞이는 거 같아. 자매애라는 게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용어이기도 하잖아. 소통 자체를 막아 버리고 감정을 먼저 끌어내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면이 있다는 거지.

오이 : 짹짹 설명을 잘해줘서 고마워!

연필 : 여성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민우회 안에서도 지부랑 본부랑 다른 점이 있잖아. 그런 차이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아야 한다' 또는 '왜 우리는 이해가 같지 않는가?'라는 강박관념만 버리면 오히려 새로운 연대감 같은 게 생길 거 같아. 아직도 뭔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있어서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했던 경우도 있었던 거 같아.

오이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연필 : (내가 일하는 곳에서) 보육수당 때문에 연차가 같아도 급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혼과 비혼인 여성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개하는 거야. '여자도 다 같은 여자가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어이없어 했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해서 더 배신감이 있었던 거 같아.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 있잖아. 자매애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도 '같은 여자니까 사회적인 입장을 이해해 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거 같아.

원사 : 엄마랑 같이 티브이를 보는데 성폭력에 대해 보도하던 기자가 여성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한 적이 있어. 그걸 보신 엄마가 "거 봐라 여자들이 문제란다" 그러는 거야. 열 받아서 여성운동하는 딸을 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인 거라고 하면서 싸웠어. 내가 분노한 건 '엄마'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유사한 경험을 가진 여자'라는 것 때문이었어.

연필 : '자매애'하면 민우회가 떠올라. 월차 같은 거 받으면 민우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피라미드 삼각방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 안에 들어가지만 해도 기운이 나는 거 있잖아. 민우회에 가

면 아무 일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나는 거 같아. 이십대 때 민우회에서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지만 내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했던 것은 내가 선택해서 찾아 갔던 단체인 민우회였던 거 같아.

맨발 : 나는 3년 있었잖아.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고향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 내가 하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연결되는 거 있잖아. 밖에 나가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더라.

오이 : 맞아, 나가 봐야 알아. 그런데 난 (여기) 있어도 좋아. (하하)

'자매애', 이럴 때 불편하다!

맨발 : 근데 그게 '자매애'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불편해. 난 여성주의 운동에서도 자매애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오이 : 그게 언제 그렇게 느껴져? 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 범사회적으로, 일상 속에서 '자매애'로 강요당하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공감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동질 의식, 그런 거야?

연필 : '여성주의자'라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야 할 거 같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을 만나면 왜 그 정도까지 여성주의자가 못 되는지 반성해야 될 거 같은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더라고, '혼나는 거 같다', '가르치는 거 같다', '반성문 써야할 거 같다'고...

원사 : 난 그 사람 입장이 이해가 돼. 내가 그랬거든. 어떤 느낌이나면 종교야 종교! 마치 종교같이 모든 게 그 기준으로 보이고, 맹신도들이 지하철에서 선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인거지.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맨발 :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달라진 거야? 뭐가 원사를 달라지게 한 거야?

원사 : 자매애, 하하하. 아까 그 사람들 영향도 있고... 근데 그건 자기 성숙이 있었던 것도 있어. 옛날에는 내 안의 그런 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버거웠거든. 근데 너무 웃긴 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잖아.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다는 거.(하하하)

연필 : 원사가 트러블 메이커였잖아. 논쟁을 일으키는 논쟁적 인간. 그런데 민우회에 원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민우회가 살아있다는 느낌, 균일한 집단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이 됐어. 의외로 오래 있기에 '민우회가 포용력이 있고, 스펙트럼도 다양하다'고 생각했어. 나가니까 되게 서운하더라.

맨발 : 사람들이 원사를 많이 그리워한다니까.

오이 : 변한 모습을 통쾌해 하는 거지. '인간이 됐구나!' 민우회 사람들은 원사를 굉장히 기특해 한다. 난 원사를 싫어하지는 않았어. 원사는 그런 유형의 대명사였는데... 하지만 사실 여성주의를 제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불편해. 어떤 말에 대해 자신의 잣대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고, 마음의 감정노동이 너무너무 심해. (하하. 원사 성토대회야?) 개인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사람.



맨발 : 내가 들이받힘을 당한 적이 있거든. 민우회에 있을 때 내가 그 지랄을 해서 받힌다고 생각도 했었어.
'내가 했던 만큼 되돌아오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원사 : 그게 재미있어. 그때는 너무 몰랐던 거야.

오이 : 근데 내가 공격적이고 모나게 구는 사람들에게 대해 들이받지 못하는 것은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 어떤 원칙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부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자매애, 있다? 없다?

오렐 : 난 '자매애'에 대해 할 말이 없었어. 왜 '차이와 소통'을 '자매애'와 연결시켰을까? 궁금했어. 나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매애가 소통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 같지도 않거든.

원사 : 그런데 자기는 왜 여성을 만나? 여성단체는 여성들을 만나잖아.

오렐 : 난 '자매애'가 있어서 여성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여성들을 만나는 게 남성들을 만나는 것보다 편한 건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이 편해서 이 사람들과 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 편하다고 자매애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연필 :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떠나보니가 그게 '자매애'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오래 다닌 직장이어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어. 내 생활이 운동이 되고 운동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내 개인적인 얘기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 내 생활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 사이에 벽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런 공간과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공동의 성취를 얻었던 기억들.

오렐 : 나는 민우회를 떠나 본 적이 없어서... 여성이라는 게 자매애의 근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운동이란 게 생활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건데 그걸 자매애 때 문이라고 말을 하는 건가 싶기는 해. '그게 과연 자매애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원사 : '자매애'라는 용어자체가 불편하긴 해.

연필 : (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는데 연대감 같은 게 나한테는 많이 힘이 돼. 특히 여자들이 때문에 느끼는 이해관계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들만의 관계 맺기와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경험을 통해 느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원가의 방식이 있는 거 같아.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다른 사람과 그런 걸 공감하게 되면 자매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오이 : 누군가 말했는데, 자기는 자매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뛰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야. 그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공감한다는 느낌이 들었대. 그것도 분절적이긴 하지만 저변에 뭔가가 깔린 다른 의미가 있는 거 같아.

대담 소감 : 자매애가 중요한가?

맨발 :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한마디씩 소감이나 마무리 멘트해 줘.

원사 : 요즘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지고 입장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 활동을 오래하면 그런 거 같아. 자매애도 뭐라고 할까? 잘 모르겠어. '자매애'라는 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소중하기도 하다는 것.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의미가 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끼리 살고 싶기도 하고...

오이 : 난 '자매애' 같은 이상적인 말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의리' 같은 게 중요해. 같이 일하면 싫어하게도 되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서 서로 연결된 끈이 강해지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더 와 닿아. '자매애'라는 말은 나에게 추상적이고 와 닿지 않아. 강요하는 거 같고 불편함이 존재해. 주변의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많은 여성들에 대한 소중한 감정들은 있지만 '자매애'라는 말은 인류전체에 대한 사랑 같아.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야.

연필 : 나는 이 대담이 자매애나 여성주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조직문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보통 이런 대담을 한다고 모이면 힘줘서 얘기하잖아. 1번부터 3번까지 정리해 와서 리포트 보면서 참고문헌 몇 개는 들먹거리면서 얘기해야 할 거 같아. 지금처럼 그냥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은 자기를 깎아 내리는 행위지. (하하) 이렇게 가감 없이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가 나한테는 자매애를 확인하는 자리야. (하하)

오뎅 : '왜 난 여성을 만나는가?' 생각해 보면, 난 여성이기 때문에 좋고 싫은 경험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여성인 게 편할 때가 있어. 싫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싫다는 것조차 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 그런데 다른 집단이든지 남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데를 가면 같은 여자라 해도 불편한 게 있어. 그게 서로간의 소통과 이해의 차이로 인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원사 : 근데 뭔가 더 할 얘기가 남아있는 거 같아 아쉽네. **앎**

자매애,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지혜 찾기

이오 ●

오래 전, 짧은 기간 일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장이 '좋은 데서' 한턱 쏘겠다면서 직원들을 데리고 간 곳은 룬살롱. 그날 그 자리에서 날 짓누른 건 피로감이었다. 사장과 남자동료들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뒷전이였다. 여자 둘과 남자 넷이 있는 자리에 '접대'를 하기 위해 불려나온 '언니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마냥 침묵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과감히 일어서 나와야 할지, 박차고 나오면 그 여성들이 모욕감을 느끼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판단하고 교통정리 하느라 머리와 마음을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속내를 감춘 채 마주앉은 여성과 술잔을 부딪치고, 급기야 그 여성과 춤까지 추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나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들끼리 반목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남자들이 만든 자리에 돈 받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 불려나온 여성들, 그리고 그 남자들과 같이 '고객'으로 왔지만 결코 그 자리를 즐길 수 없는 여자들의 마주침. 그런 상황에 불가피하게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매뉴얼이 있을 리 만무했다. 다만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든 험악하지 않게 돌파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그 자리의 여성들과 말이라도 한마디 더하러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같은 가시방석에 앉아 굳어 있는 여자동료에게는 마음을 쓰지 못했다.

박차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여자동료들이 있으니 남자들도 조심하고 있는 거라고 내심 변명하며 '지금은 협상 중'이라 합리화 했던 나, 경직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킨 까닭에 옆에 앉아 말붙이던 여성마저 다른 자리로 옮겨 가게 만든 그녀. 이튿날 점심을 사겠다며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진심을 터놓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 "어젯밤에 불편하셨죠?"란 말로 조심스레 입을 뗐으나 그녀는 쌀쌀한 말투로 "불편했어요. 그쪽은 잘 노시던데요." 그리고 끝이었다. 나중에 그녀의 말을 전해 들으니 나는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장단 맞춰 정치적으로 잘 노는, 그리고 '불결한 여자들'과도 잘 어울리는 한심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나는 '남성그룹'에 속한 사람으로 비쳐졌다는 뜻이다.

그 불편한 자리에서 빠져 나갈 용기는 커녕 센스조차 없었던 나와 그녀. 그 일이 있은 뒤 힘을 합쳐 ‘그날 밤 이런 이유로 불편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사장과 남자동료들에게 단호하게 요구할 수는 없었을까. 또 그녀에게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오바했다’고 털어놓을 순 없었던 걸까. 그러나 그날 밤 강박적으로 행동한 나와 그 자리의 모든 사람에 대해 경멸적 태도로 일관한 그녀 사이에는 이 정도의 소통도 쉽지 않았다.

요즘은 현실에서의 경험에 더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이 같은 소통불능의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 특히 여성문제에 공감하던 여성들끼리 남편의 외도 상대나 유흥업소의 여성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입장이 확 갈리는 경우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여자들이 사회구조와 남자들을 향해 포문을 열 때보다 오히려 여자에 대해 말할 때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훨씬 심해진다는 말이다. 여자들끼리 등 돌리게 하는 게 가장장제의 지배전략이라는 당연한 분석이 이럴 땐 심정적으로 별 도움이 못 된다. 적절한 언어를 찾아서 소통하지 못하는 내가 답답해지고 불만스러워진다. 내가 무슨 해결사병이나 구세주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건 주로 페미니스트 관점을 지지하는 여성들과 외도의 실질적, 잠재적 피해여성들 간의 대립양상으로 비쳐지는 이런 언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입지가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갖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여자들끼리 머리채 잡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를 설파한 여성에게 돌아온 반응이 ‘나는 페미니즘이 지긋지긋해요’였다. 한마디로 ‘내 이해관계와 생존기반이 흔들리는데 그런 이론은 엉장

지르는 한가한 소리’라는 것이다. 이런 글일수록 막강한 추천수에 꽃까지 팡팡 달린다. 이처럼 치열한 ‘체협 삶의 현장’에서 통하는 자매애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녀를 같이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장에서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발언’을 하는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보다는 발등의 불을 끄는 실질적인 방편이 먹힐 뿐이다. 이런저런 경험으로 깨달은 건 ‘자매애’가 하나의 이상(理想)이자 당위일 수는 있겠지만, 현실에서 서로 다른 처지와 조건의 여성들 간에 열킨 문제를 풀 땐 그 해법이 대단히 섬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지혜를 공유하지 못하는 한 애초의 이상도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에 그치게 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했던 여성들조차 지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누구도 자매애라는 화두를 놓고 ‘바로 그거야’라고 무릎을 치기 어려운 것은 그 말의 내포와 외연을 간단히 정의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까닭이 아닐까. 그래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에 당면했을 땐 자매애라는 말을 서랍에 넣어두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이슈에 따른 여성연대’라는 딱딱한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다. 그 대신 나는 자매애라는 말을 하나의 이상적 은유로 받아들이고 싶다. 은유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가능하니까. **임**

이오 ● 어느 날 느닷없이 편집위원이 됨. 평소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 없으나 이 글을 쓰면서 자신에 대해 모르던 것들을 깨닫게 됨. 그 동안 여자관계 문제 많았구나!

1988년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

민우회의 노동생존권투쟁 지원

권미혁 ●

‘구 사대’란 말을 들어보았는지? 한마디로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요즘의 정서로 이 말을 이해하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무언가 희생하거나 노력하는 사람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1988년 당시 구사대는 생존권투쟁을 하는 노동자를 폭력으로 깨부수려는 데 동원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1988년은 87년 6월 항쟁 이후 억눌렸던 각종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노동현장의 움직임은 가장 절실하고도 큰 것이었다. 87년 7~9월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총 3,400여건의 노동자 투쟁이 있었고, 이는 1980~86년에 일어난 모든 투쟁수보다 많았다. 새롭게 결성된 노조도 1,000여개에 이르렀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억압되던 데 익숙하던 사용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구사대’였다. 새로운 형태의 탄압수단이었던 것이다. 구사대는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와 노조에 의한 생존권 투쟁을 단시일 내에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구로공단 오토론 전자의 경우 노조가 만들어지자 ‘노조 집행부 불신임건에 대한 임시총회 요구서’에 도장 찍기를 강요하면서 조합장인 송은숙씨를 남자 구사대 4명이 집단폭행했다. 대원전기에 다니던 오범근씨는 구사대 폭력에 항의해 음독 자살하기도 했다.



“풍정노동자 중 ‘노조파괴에 가장 앞장선 사람에게 수퍼마켓을 차려주겠다’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오미령(당시 풍정산업 노조위원장)

무엇보다 가혹했던 것은 구사대가 같은 노동자였을 때였다. 구사대란 표현 속에 나타나듯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는 회사를 해치는 사람, 노조 결성을 저지하는 노동자는 회사를 구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었다. 노동자와 노동자를 이간시키는 분할지배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3월 말경 부천 풍정산업의 구사대 2명이 ‘노조가 생기자마자 회사 측이 7명을 시켜 현 노조를 깨뜨리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른 유흥비는 영수증만 주면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민우회가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을 하게 된 것은 구사대폭력을 막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본질을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모순과 연관시킨 소위 ‘기층민중 중심주의’ 라는 노선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요 해결과제임은 당연한 것이었고 민우회도 노동분과를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처지에서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어 처음의 ‘구사대 추방운동’에서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왜 직장 내 폭력추방이 여성운동인가? 여성문제의 본질이 ‘여성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인 만큼 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억압은 여성문제의 핵심이며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쟁취, 단결권 쟁취는 여성운동의 주요과제가 되며, 때문에 직장 내 폭력추방이 여성운동의 실천과제로 되는 것이지요.”

(출처 :함께가는 여성, 민우회 공개토론 자료에서)



이 사업은 1988년 2월 9일부터 한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부에서 맡게 되었다. 노동분과가 있었음에도 사회부에서 이 사업을 맡은 것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기획한 때문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총괄책임은 사회부장이었던 내가 맡고 기획은 박난숙, 홍보빛 자료정리, 연대는 김미숙, 폭력이 있는 회사 노동자들의 고발을 담당하는 고발창구는 조정하, 각종 대회담당은 최문희, 여연(여성단체연합)과의 협조는 당시 여연간사였던 한상실 등이 맡기로 하고 3월 9일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민우회의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은 금세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오토론 전자, 성남 옥산 무역, 부천 풍정산업 등 여러 노동현장에서 민우회에 고발을 해와, 민우회 대표자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진상조사와 항의를 위한 방문을 다니느라 바빴다. 평소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던 나도 장롱에서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다.

민우회가 이 운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구사대 폭력의 진실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는 갑자기 늘어난 노동운동과 노조결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때문에

1. 신애전자

구사대폭력

"저희 노조원들은 부당해고된 노조간부 4명에 대한 전원목직은 물론 예방강요 철폐, 강제잔업·철야작업 철폐, 민주노조인정, 나아가 구사대폭력이 이 땅의 노동현장에 발 디디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구사대 폭력으로 여성조합원 2명이 이마와 머리를 몇바늘씩 꿰맸다.

금속노련 간부가 구사대를 진두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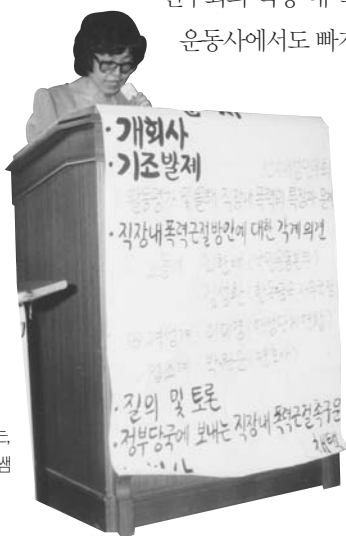


“여성노동자를 구사대로부터 보호하자”
88년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선전전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구사대 폭력은 노동현장 내의 일로 치부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일어난 민우회의 폭력추방운동은 사회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민우회가 ‘폭력’이란 키워드로 여성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이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사용자의 노동자 탄압을 폭로할 수 있었다.

새삼 기억나는 것은 당시 활동가들의 땀과 열정이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방법이던 만화를 이용한 선전지를 만들기 위해 조정하는 밤을 꼬박 새기 일주였다. 전국의 노동현장을 누비며 구사대 폭력을 수집하던 이미숙 활동가도 생각한다. 또한 박난숙 활동가의 탁월한 기획력은 더 많은 이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노동현장에서의 시위는 대부분 경찰서 연행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던 때에 구로공단 여기저기에서 한 시간 넘게 폭력추방이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고 노동운동가들이 감탄했던 것도 기억난다.

민우회의 직장 내 폭력추방운동은 민우회 역사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사와 노동운동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기억되는 의미있는 노동생존권 투쟁활동이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집자리안경의 권미혁 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의 중간 보고대회의 사회자로서 계속 ‘구사대 폭력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조마조마한 맘으로 지켜보던 그때의 활동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싶다.

“미안!!! 애들아. 추방이라는 글자를 빼먹긴 했지만 모두 폭력추방이란 뜻으로 알아 들었을거야. ^.^!!!!” 았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유구하고 전통적인 기준은 여성인가, 남성인가이다. 그 구분을 근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 관습, 문화, 인식은 그대로 차별이라 불러도 좋았다. 비정상적이라는 판단, 불쾌한 감정에 대한 근거로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고리타분한 근거 또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이다. 문제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문제로 보는지,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교사 중 여성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인가?

통계적 불균형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서울시 교육청이 남성교사 채용할당제를 추진하여 논란이 되었다. 지난 4월 초 서울시 교육청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남성교사 채용할당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연도별 여교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 여교원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커 '양성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남성교사 할당제 도입, 누구의 욕구인가?

신기루 ●

보고 있다. 현재 초,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70% 정도이다. 24세 신입교사는 83.5%, 29세 신입교사는 95.6%가 여성이다. 어떤 직종에서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분업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통계적 불균형은 그 자체가 차별의 징후나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적용하는데 수치 자체를 기준으로 4/5를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그 통계적 불균형이 사회적 차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성이 교직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과연 남성교사가 적은 게 '정말' 문제인지를 살펴볼 일이다.

교직의 여성화가 문제라고 보는 시선은 '균형이 없다, 여성이 교직을 장악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교원사회에서 남성들은 의사결정직을 독점하고 있다. 여교장과 여교감의 비율은 아무리 높아도 15%를 넘지 못한다. 시간강사의 81%, 기간제 교사의 84%가 여성이다. 교원사회에서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최하위층에 다수의 여성이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교사의 성별 불균형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고위직에서 여성의 수적 불균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가르치는 학교

할당제 도입의 주요 근거 두 번째는 남성교사 부족으로 학교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여성교사와 남성교사의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 준비, 뒷정리, 심부름 등 주변업무에는 여성교사를, 엄격한 학생지도, 건물·시설관리, 대외업무에는 남성교사를 배치한다. 여성들은 야근, 숙직을 못해서 안 뽑는다는 말, 여교사에 대한 커피심부름 강요, 성희롱 소식도 꾸준히 들린다.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해 여교사들은 주변 업무를 강요받고, 다수이지만 권력이 없는 여교사들은 언제든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별고정관념은 교수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데도 반영된다. 한 교육관계자는 여성교사가 많아서 아이들이 체육, 수학에서 부진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여성은 온순하고 감성적이며 언어에 뛰어나고 남성은 활동적이며 진취적이고 경영, 관리에 적합하다는 생각은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교직사회 내 역할배치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가 여전히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사회규범을 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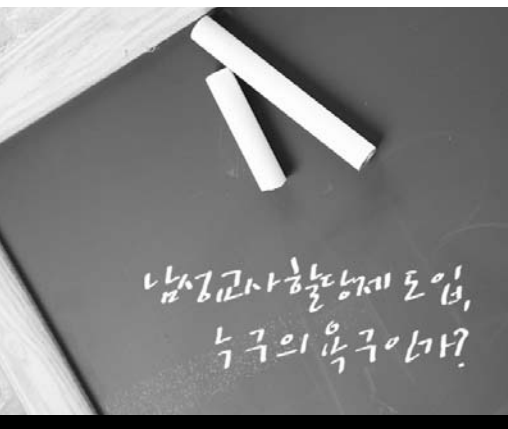
차 준비, 뒷정리, 심부름 등 주변업무에는 여성교사를, 엄격한 학생지도, 건물·시설관리, 대외업무에는 남성교사를 배치한다. 여성들은 야근, 숙직을 못해서 안 뽑는다는 말, 여교사에 대한 커피심부름 강요, 성희롱 소식도 꾸준히 들린다. 성별고정관념에 근거해 여교사들은 주변 업무를 강요받고, 다수이지만 권력이 없는 여교사들은 언제든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여성답게, 남성을 남성답게 기르는 성별가치 규범까지 재생산하는 곳임을 보여준다.

학교 현장의 성별고정관념은 ‘남자아 이들이 여성화된다는 우려’에서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주체는 교장, 교감을 포함한 남성관리직과 남성교사, 남성행정직 집단이다. 과거 교직에 남성이 더 많았던 시절 혹은 남성교사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등학교에서 ‘여성의 남성화’가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다. 단지 ‘남성의 여성화’만이 문제시되는 것은 남성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성’을 잃는 것은 남성권위를 상실하는 큰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

학부모와 학생이 남성교사를 원한다?

할당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한다고 주장한다. 모 토론회에서 모 남교장은 자녀가 6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남교사를 만났는데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외활동으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상승하고 학습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회 부회장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그 교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욱 신경 쓰인다고 했다. 남성교사를 원한다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욕구 또한 일관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화할 만한 의미 있고 객관적



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직을 원하지 않는 남성들에 대한 적극적 조치?

그렇다면 교직이 여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해결수단으로서 할당제를 고민하는 것은 정당한가? 필요한가? 효율적인가?

할당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하나로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누적된 차별의 해소, 차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의 의미가 있다. 소극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고 해도 해소될 수 없는 개인 간의 자원 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결과의 평등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남성은 교직사회에서 소수자인가? 차별의 피해자인가?

또한 할당제는 고용을 원하나 누적된 관행,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남성들이 교사직을 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할당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여성에게 교사직은 동일직급의 남교사에 비하여 비교적 차별 받지 않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의 단절이 그나마 덜한 유일한 직종이다. 그러나 남성에게 교사직(특히 저학년의)은 돌봄과 양육이라는 '여성적'인 일의 연장으로 특별히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다. 차별에 의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피한 것이다.

왜 다수의 여성이 교직으로 가나?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는 왜 다수의 여성이 교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성은 모집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정년, 퇴직, 해고에서 단계마다 혹은 누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장벽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인 위치

에 놓이게 하고 이를 재생산한다.

이번 남성교사할당제 추진은 남성정책입안자들이 여성이 다수임을 위험징후로 해석하여 남성을 피해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등장한 남성의 여성화 우려나 성역할 이분법은 이미 90년대 중반 n개의 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성역할의 유동성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도 진부하다. 물론 남성이 소수인 직종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남성이 차별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차별에 대한 깔끔한 문제제기와 상응한 제안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남성중심 직종이 여성중심이 되는 것, 남성이 여성화되는 것 자체가 위기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서로 바뀌고 섞이는 과정에서 그러한 구분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 성별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남성교사 채용할당제 도입을 고민하기에 앞서 학교 현장에 만연한 성별고정관념과 낡은 성별분업체계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알**

신기루 ● 알프레도 반바지 입은 비오는 날
이 할당제 말고 다른 할당제 고민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미FTA를 타결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한미FTA를 둘러싼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직도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협상단 덕분에, 협상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한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정부의 어설픈 비밀주의가 한미FTA의 흥행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타결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내용을 받아쓰기하며 자유무역의 장밋빛 미래를 예찬하던 언론도, 이제는 협상 내용의 문제점과 향후 동향을 주시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한미FTA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도대체 한미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먼저 한미FTA의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는 현재 타결된 한미FTA의 협상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협상단은 한미FTA를 타결한 지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협상 내용의 공개를 노골적으로 회피하

지속가능한 빈곤을 강요하는 한미FTA

이원재 ●

고 있다. 지난 1년 내내 협상 전략이라는 핑계로 내용 공개를 회피하던니 이제는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협상 내용의 공개와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전체적인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준다고 할지라도, 한미FTA 협상 결과는 '피해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이익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협상 내내 정부와 협상단은 '원원', '빅딜', '중간수준의 FTA' 등 온갖 수사를 동원했지만 결국 '한국은 최대한의 개방을 하고 미국은 최소한의 개방을 한 불평등하고 비상식적인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4대 선결조건은 물론 사상 최악의 농업 포기 정책, 문화 공공성 파괴 정책 등에 합의한 반면, 정작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강조했던 자동차, 섬유 등은 형식적인 관세철폐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욱이 협상 기간 동안 쟁점이 되지도 못했으나 노골적인 퍼주기 협상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금융 및 투자 분야 등을 고려한다면 한미FTA 협상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 협상으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가 단순히 개별 협상 내용이나 업종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



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FTA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골적으로 ‘인간보다 기업을 위한’, ‘생명보다 이윤을 위한’ 정책이다. 정확하게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국익이 아니라 국적조차 없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자유무역’이란 인간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자유일 뿐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 앞에서 인간의 정체성이나 생명 등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해 소비하고 거래해야 할 상품일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넘어, 한미FTA라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테

제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살인적인 경쟁사회, 삶의 질 파괴’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 농업 개방 문제 등은 단순한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심각한 사회적 의제들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는 보수 언론의 주장처럼 단순히 한우 농가들의 피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LMO(유전자 변형 생명체) 문제 등과 함께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식품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정부와 초국적 자본들은 광우병이라는 거대한 인류의 재앙을 단순하게 쇠고기 값 인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셈이며, 이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질병의 세계화를 묵인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자동차 세제 개편과 농업 개방 문제 역시 단순히 경제적 이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식량주권, 국가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권리

가 침해되고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지난 2월 한미FTA 협상을 기습적으로 개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한미FTA의 주요한 정책 목표로 강조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 지금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한미FTA 협상 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한 한국 내 자발적 자유화 조치 등은 ‘사회적 양극화의 가속화, 비정규직과 고용 불안정의 확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협상의 개별 내용과 업종별 이해를 넘어 자유무역 제도는 결코 시민과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초국적 자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자유무역 제도는 ‘살인적인 경쟁사회’와 ‘지속가능한 빈곤’으로 우리를 이주시킬뿐이다. **▶**

이원재 ● 문화운동가이며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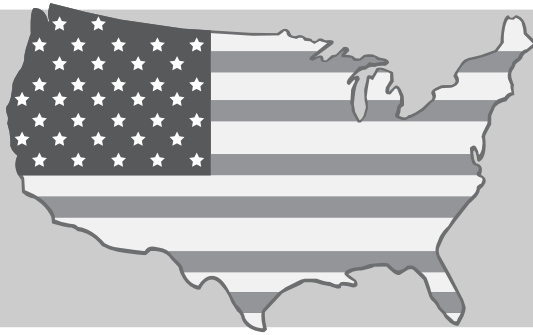
OARS, 빈곤문제와 가정폭력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한설아 ●

저는 미국 캔자스 로렌스라는 도시의 가정폭력생존 자여성을 위한 단체에서 사회복지식사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일년간 인턴으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Women's Transitional Care Services(WTCS)이고, 생존자여성들을 위한 쉼터 이외에 법률 서비스와 가정폭력예방교육 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도시의 유일한 가정폭력관련 여성 단체입니다. 저는 저의 실습시간을 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일부는 쉼터에서 위기전화를 받고 쉼터에 온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시간은 특별히 빈곤문제와 가정폭력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명 올스OARS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올스 프로그램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스OARS 프로그램은 영어로 Orientation, Assessment, Referral, and Safety의 줄임말로, 가정폭력피해에 시달리는 빈곤여성들을 위한 캔자스 주만의 특별 프로그램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탄생배경에는 미국 공공부조 정책의 역사적 변화가 맞물려 있습니다. 1996년 클린턴 정부는 공공부조를 받는 수혜자들이 반드시 일정시

간 정도의 일을 해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부조수혜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공공부조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공공부조 수혜자들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이었는데, 당시 가정폭력운동을 하던 활동가들은 이 여성들 대부분이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고 만성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업활동을 하는 것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학대자들은 여성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그런 명시적인 방해가 없다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손상은 여성들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기간 직업활동을 유지해야 계속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많은 여성들을 그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운동가들은 캠페인과 로비를 통하여 공공부조개혁법의 일환으로 Family Violence Option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각 주 정부가 공공부조의 수혜여성들이 가정폭력생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생존자일 경우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부조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지역의 가정폭력단체와 연계하여 여성들이 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미국의 특성상 각 주마다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캔자스 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여성운동단체와의 긴밀한 연계가 보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올스OAR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생존자여성들을 위한 단체 혹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가들을 직접 각 도시의 사회복지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그 활동가들은 정부사회복지사들과 연계하여 공공부조혜택을 받는 여성들 중 가정폭력생존자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원

활동은 여성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사례관리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활동은 법원이나 육아시설 등 원하는 곳으로 여성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독립할 집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는 등 여성들의 거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는 아주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쉼터를 나가서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독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 비해 활동가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여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제대로 올스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사회복지과에 가정폭력문제만을 전담하는 활동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가정폭력과 빈곤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사들이 충족시켜줄 수 없는 지원혜택에 대한 욕구를 올스 활동가들이 사례관리에 준하는 지원으로 충족시켜 주는 기능도 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실습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연결고리에 대해 직접 목도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한부모 여성들 중에 과거에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여전히 그 폭력의 영향 하에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겪는 빈곤과 폭력이라는 이중적 고통에 주목하는, 특히 한국적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고안되고 운영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함**

한설아 ●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박사통합과정 / prana70@empal.com

편식의 즐거움

먼지 ●

어느 날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돈이 굳는다. 한 단에 1000원인 쪽파와 한통에 1000원인 양배추, 1000원짜리 애호박 하나면 일주일을 먹고도 남는다. 허도 변한다. 풀 먹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야채들이 가진 원래의 심심한 맛에 점점 더 길들고 있다. 사 먹는 음식들의 자극적인 맛에 점점 더 끌리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즐겁다. 고기를 먹지 않는 생활은 아슬아슬하게 지켜가는 결심이나 금기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욕망이 되어 가고 있다. 다이어트 못하게 하는 게 여성주의인 줄 알았다가 여자들의 몸이면 어떤 몸이든 예뻐 보이는 순간을 맞았을 때처럼. 지식으로 배워 말하는 것보다 몸이 알고 그렇게 사는 것, 정치적으로 검열하기 전에 욕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즐겁다.

그러나 음식을 직접 해 먹거나 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생긴다. 고기는 흔하고 쉬운 음식이다. 만만한 회식 장소가 고기집이고, 만만한 야식이 통닭이다. 힘내라며 사주는 특별한 밥 한 끼는 특별하기 때문에 고기인 경우가 많고, 행사를 준비하며 먹기 위해 단체로 주문한 야채김밥에는 햄이 들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자, 나는 ‘고기를 안 먹어서요’라고 일일이 자신의 예외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여기서 발생한다.

처음에는 단지 설명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나를 설명하면, 모두들 자연스럽게 나를 인정해주었다. 고깃

집보다 더 비싼 굴 전문점에서 밥을 사주는 사람도 있었고 회식 장소도 그냥 고기집에서 비빔밥도 파는 고기집으로 바뀌었다. 야식으로 통닭을 먹을 때면 골뱅이 소면도 함께 주문한다. 단체 주문한 김밥에서는 햄을 빼고 먹었고 대신 두 줄을 먹었다.(물론 햄먹던 시절에도 두 줄을 먹긴했다.) 이런 채로라면 불편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았다.

채식주의는 정치적 입장이다. 어떤 이는 대량 사육되는 동물의 몸들을 홀로코스트에서의 인간의 몸, 여성의 몸을 육체로만 이용하는 강간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 이래 이성이 개발되지 않은 동물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을 반성하기도 하고, 사유하지 않지만 살아 있음 자체로 충만한 동물의 감각을 오히려 인간이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편식의 출발이 '동물을 존중하고 인간을 성찰하자'는 정치적 의제는 아니었다. 현재의 나에게서는 풀 먹기 좋은 생활이 투쟁해서 공동선으로 획득할 만큼 절박하거나 더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편식'이라는 말로 내 식성을 취향의 문제로 명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발생한다.

풀 먹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고기를 보는 것, 고기 냄새를 맡는 것, 고기가 씹히는 것을 보는 것 등등도 점점 싫은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 단지 다른 선택지 하나를 옵션으로 마련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빔밥은 있지만 회식 장소는 고기집이다. 골뱅이 소면이 있지만 통닭 포장을 뜯는 순간 사무실은 닭 냄새로

가득 찬다. 고기를 먹는 것이 즐거운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 취향의 경합 역시 정치적인 의제일 수 있음에 대해 더 구체적인 말들을 만들어야 할까? 취향을 경합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뭔가를 먹으며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다수의 취향과 다른 취향을 가진 한 사람이 회식을 빠지고 야식 시간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라도 만들어 가야할까?

나는 세번째 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 고기집을 뒷풀이 장소로 잡는다. 함께 고생한 행사를 끝낸 뒤에 뒷풀이에 빠지려는 사람을 아쉬워스러도 당연히 붙잡게 된다. 그러나 편식자는 애초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래도 결국 빠지겠다면 기분 좋게 인사하며 헤어지지만 가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마음은 편하지 않다. 고기가 흔해 빠진 세상에서 식성이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려 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국 함께 하지는 못했다'는 혹은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불편함을 가질 것이다. 물론 그 정도는 나눠 가져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직은 여기까지이다. 이 불편함을 함께 감당하는 방식이 아마 나와 당신의 관계를 달라지게 할 것이다. 불편함은 서로를 도전시킨다. 변화를 낳는다. 불편함이 즐거운 이유이다. **㉮**

먼지 ● light my dust!

그 애기 엄마 잘 있겠지?

임계재 ●



70년대 초 중반, 계집애가 중국집에 가면 거저 배울 중국어를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우겠다는 것은 전혀 영양가 없는 처신이었다. 하다 못해 약대나 교육대학을 가면 제 등록금은 건져낼 수 있으면만 짱꼴라, 동네에서도 가장 후진 중국집 사람들이 열 받으면 쭈알라대는 그 말을 돈 내고 배우겠다는, 이건 맛이 가도 한참 간 정신머리였다. 중문과 들어가면 내가 미쳐있던 장자 따위나 배우는 것이려니 생각했지 희한한 성조의 약간 닭살 돋는 그런 말이 거의 전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애증이 점철된 나의 중국이란 개념은 시간을 더해가면서 이력저력 포개졌다. 별 생각 없이 살아내다가 주변사람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아팠고 당시로는 마지막을 앞 둔 내게 친구의 유혹은 “어서 털고 일어나, 중국 가자!”였다. 중국 가려고 그랬는지 희박한 회복의 확률을 뚫고 어쨌든 일어났고 밀레니엄시대가 왔다고 법석인 와중에 나는 여름방학이 되자 도도한 양자강과 다시 대면했다.

박물관 견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갓 배운 중국어로 바가지를 써도 신나는 시장보다 훨씬 못한 것일 테고, 무식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유물에 ‘와!’ 소리 한 번이면 선생에게 끌려 간 재미 없는 문화탐방은 끝일 수 있다. 그 짧은 무리를 뒤에 남기고 슬그머니 내려간 남경박물관 지하 테라코타 룸에서 그 애기 엄마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한시대(東漢, 後漢, AD 25- 220)에 만들어진 흙덩이에 어미의 진한 숨결을 품고 이천년을 기다려 나를 만나준 그 짧은 여인은 품에 갓난쟁이를 안고 있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라는 남경(난징)은 천년 고도로 우리나라 전주만큼이나 조신한 아름다움을 지닌 도시이다. 훨씬 이전에는 변두리 중국 땅에 지나지 않았을 난징 그 언저리 어딘가 무덤에 숨어있던 이 여인은 이천년 지난 오늘 소중한 애기를 데리고 우리 앞에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막 젖을 물리려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이다. 왼쪽 가슴을 열고 무릎에 놓인 새끼에게

젓 먹이려 준비하는 그 여인네는 말할 수 없이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다. 수유기 여성 특유의 풍만한 가슴, 아직 젓 빨리지 않아 탕탱히 붙어있는 젓을 붙들고 내려다보는 무릎의 아기, 제 배볼려줄 어미를 쳐다보는 어린 것 입에서 “홍홍” 터지는 흐뭇하고 행복한 탄성이 금방이라도 내 귀에 들릴 듯 하다. 처음 이 모자를 만난 순간 나는 40도가 넘는 바깥 날씨에 비해 터무니없이 썩썩 돌아가는 에어컨의 냉기 때문인지 진저리를 치면서 울었다. 견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의 근원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여인네의 무한한 힘이 었다. 목숨 내 걸고 이 세상에 데려 온 그 여인네는 자신의 보배(중국사람들은 아기를 보배라 부른다) 아기에게 ‘이 어미의 젓 먹어 줘 고맙다’ 는 말을 속삭일 것 같았다. 아이 낳은 것은 여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그것은 힘의 근원일 터이다. 나도 그렇게 내 어머니 젓을 빨며 자라 이 세상을 할보하는 여성으로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어머니가 젓 물리며 짓던 미소와 이천년 전 중국의 젊은 여인의 사랑은 같은 질량으로 자식에게 향하고 있으리라. 송고하다는 단어를 육화(肉化)시킨 절실한 순간이었다.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나를 원초로 돌려놓은 가장 인상적인 상징물을 만났던 것이다.

겨우 눈물을 수습하고 돌아서며 나는 아기 엄마에게 약속했다 ‘다음에 남경 오면 꼭 다시 찾아오리다.’ 그리고 다음 여름 수없이 여러 번 그 아기 엄마를 만나러 박물관을 드나들었다. 갈 때마다 저릿한 감동에 마음을 가득 채워 흐뭇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고 엄청난 의욕으로 사방을 헤집고 다닐 수 있었다. 삼 년을 결석한 지난 여름 자신들이 그리도 위대한 존재이면서도 자신감 떨어뜨리고 우울감에 허우적거리는 어미 여럿을 이끌고 남경으로 날았고 다시 솟구치는

눈물 때문에 함께 간 사람들에게 들려 줘야 할 간단한 설명에도 한참 뜬눈을 들여야했다.

박물관 남자직원은 삼 년이나 소식 없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몹시 반가워했다. 중년의 사나이는 매양 아기 엄마 앞에 붙어 떨어질 줄 모르던 나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보내 준 평화로운 반김 속에도 그 어머니의 따뜻한 젓이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이란 행복한 확신으로 다른 도시로 날아간 나는 늘상 죽도록 더운 중국에서의 끔찍한 여름을 잘 넘겼다.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이 모든 어미의 가장 행복한 심정이라는 말을 질리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내 새끼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아파트 사 쟁여놓고 남이야 거리에 나 앉든 말든 내 새끼 편안하면 장땡이라고 악을 써대는 어미도 많다. 궁핍을 경험한 세대였으니 그럴 만도 하겠으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어미의 마음자리다.

지금 힘 빠지고 우울한 어미가 있다면 나와 함께 남경으로 날아가자고 권한다. 안 이쁜 데 없는 내 아기에게 젓 빨리던 그 순간을 한 번만 기억해도 지금 닳친 우울과 슬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이천년전의 아기 엄마를 만나는 순간 단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담한다.

뱀발(蛇足)을 이토록 장난스럽게도 말하더군요. 사나흘 모든 것 잊고 봄바람 부는 차분한 도시에서 오롯이 기다릴 그 여인은 복잡하고 비싼 여행성수기 아닌 지금 만나보기에 가장 좋은 낮빛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6, 7월 이전이면 가격도 만만해진다. **함**

임계재(청요리집) ● 중문학자
숙명여대 지역학 연구소 중국학 책임 연구원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은숙 ●

내 엄마 우 여사는 올해 일흔 살이다. 그녀의 딸인 나는 마흔이다. 삼십년이라는 세월의 강폭은 짧은 것 같아도 넓고 깊다. 이제 그녀와 나의 이야기를 하려하니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컥하는 뜨거운 것이 목젖을 자극한다.

그동안 내게 있어 엄마는 가능하면 안보고 싶은 존재였다. 엄마로부터 받는 상처가 싫어서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하게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였다.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는 늘 엄마를 화나게 했고 그 화풀이 대상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항상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다. 사업이 망하면서 극에 달한 엄마의 분노와 폭언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 지금껏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십년은 족히 되는 세월이다.

아들이 둘 있어도 잇단 불행으로 큰 며느리는 사고로 죽고, 작은 며느리는 사고로 인해 평생 전신 마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식들의 불행을 안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가 보다. 자신의 욕망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이 욕망을 채워줄 희망도 없으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지 못해 자식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딸들은 그래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아들들은 자꾸 엄마와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엄마는 그런 아들들에게 들은 말을 삭이지 못해 악을 쓰며 원망을 했다.

엄마는 딸인 나에게 고스란히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곤 했다. 처음엔 엄마를 위로하고 그 다음엔 엄마를 이해하려 하고 그런 다음엔 엄마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엄마가 쏟아놓는 그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엄마가 너무 싫어서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기도 했다. 자식이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혀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건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난 더 이상 엄마를 이해하기 보다는 원망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엄마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자식을 감싸주지 못하는 엄마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싫던지. 잊으려 애썼던 지난 상처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나 우리는 생채기를 내며 폐부 깊숙이 서로를 박박 긁어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드라마나 주변에서 엄마와 다정히 있거나 엄마를 지극히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죄책감에 괴롭고 우울했다. 엄마가 다른 집 자식들의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강요하는 뉘앙스를 듣는 것도 공통이었다. 이러한 죄책감은 피해의식과 더불어 무섭고 소름끼치는 것이었다. 가끔 집에 와서 주무시기라도 하면 고된 삶에 빠 관절들이 아프다며 밤새 숨소리가 거칠다.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이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 그 이율배반적인 감정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어쩌다 우리 모녀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정리 되지 않은 마음과 대면하자니 힘이 든다.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민우회 활동을 한지 이제 7년이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내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보면서 이제 엄마와도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연히 접한 상담공부가 날 위로했고, 여성학 공부가 엄마도 한 여성일 뿐이라는 걸 알게 했다. 엄마로만 바라볼 때는 모든 게 용서가 안 되지만 그냥 한 사람인 여성으로 만나면 이해 못할 상황도 아닌 것이다. 올해 노동자의 날에 난 내 자신에게 책을 선물했다. ‘엄마 미안해’ 라는. 그 책을 통해 나는 엄마와 화해하는 법을 알고 싶었고 엄마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

내가 왜 그토록 엄마를 떨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했는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난 엄마가 진정으로 내게 아니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그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엄마에게 말이다. 그러나 ‘미안하다’ 는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이제야 엄마가 내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보다도 더 험한 가슴을 품고 살아야 했던 엄마가 이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음을 알아 버린 것이다. 그동안 상처만 받아왔던 나는 모처럼 시원스레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창피하다며 환갑도 하지 못한 엄마는 이제 칠순이다. 언니, 엄마, 나 이렇게 여자 셋은 그동안 풀지 못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행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타들어간 사막과도 같은 가슴은 사막에 가서 놓고 와야겠지만 비용과 거리의 이유로 행선지 후보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글을 쓰는 시간은 내게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고통스런 시간이기도 했다. 아는 것은 곧 상처받는 것이라고 했던가. 상처받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출발선에 선 나를 응원해 주기를 기대하며 내 엄마 우 여사에게 ‘사랑한다’ 는 말을 처음으로 써 본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은숙 ● 원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행복중심’으로 반포에 서다

구명숙 ●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알림〉 서초 조합원 번개팅 *2007년 2월 15일 오전 11시* 강남 영풍문고 앞 분수대

문자 370통을 보내놓고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설밑인데다 아무이유 없이 번개팅이라는데, 조합원들이 나올까? 전화가 왔다.

“어떻게 만나지요? 얼굴도 모르는데…”

“아직 이런 연락은 없었는데, 무슨 성격의 모임인지…”

“제가 피켓을 들고 있을게요. 민우회생협의 새로운 계획도 이야기하고, 점심도 먹고, 조합원들간 친목도 다지고… 19년만의 첫모임인데 얼굴도 뵈구요.”

2월 15일 영풍문고 분수대 앞에는 9명의 조합원이 나왔다. 어떻게 시작할 지가 걱정이었지만 일단 만나니 반가웠고, 조합원인 것만으로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여성민우회 생협의 비전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행복중심-happy zone’ 즉, ‘새로운 매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야기 할 때는 모두 즐거워 하였고, 응원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날 이후 조합원들은 매주 모임을 가졌다. 왜 매장을 개장해야 하는지, 우리 조합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합원이 바라는 매장은 어떤 것인지 등등 많은 희망과 기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매장을 준비하는 데 모두 담겼다. 김윤숙, 임영애, 신창기, 박미정, 박영수, 김현희, 이숙희 조합원님 등 수많은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꿈들은 다른 듯 닮아있었다. 민우회생협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 조합원-생산자-직원이 모두 주인이 되어 ‘행복중심’ 여성민우회생협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민우회생협 매장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매장사업’에 담았다.

한편, 매장은 ‘반포상가 L동 105호’로 결정하고, 사무국에서는 첫 직영매장을 성공적으로 개장하고 운영하기 위한 6명의 특별팀(김자현 상무이사, 허경희 생활재개발관리과장, 임영미 전산개발팀대리, 양성희 홍보담당, 구명숙 매장사업담당, 유동 컨설턴트인 최성원 유어초이스 대표)이 만들어졌다. 매주 회의를 갖고 매장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준비하였다.

2월 24일 정기총회 후에 ‘민우회를 사랑하는 생산자모임’을 통해 생산자들에

게 민우회생협의 사업방향을 브리핑하였다. 생산자들도 매장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3월 21일 매장을 계약하고, 생산자들의 참여와 출자가 이루어졌다.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참여와 출자도 진행되었다. 4월 2일 입점하여 설비와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공사 중 개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조합원들은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지역 홍보에 나섰다.

드디어 개장 전날, 간판이 달렸다. 고심해서 결정한 간판명은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친환경식품전문점 행복중심 - happy zone.' 생활재를 매장에 진열하며 '이 생활재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이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꿈이 이 생활재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내가 집에서 공급받던 그 생활재가 아닌, 더 큰 가치를 지닌 무엇으로 보였다. 각 분야에서 조각조각 흘린 노력을 모아 매장의 형태를 갖추고 나니 '정말로 매장을 개장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과연 잘 될까' 하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쳤다.

그리고 5월 3일 첫 직영매장과 함께 여성민우회생협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제 개장 후 보름이 지났다. 1천8백명의 지역주민과 조합원이 매장을 방문하였다. 도토리묵 생산자 농민식품의 김영순 생산자가 장날을 열고, 씨알축산의 냉장육 판매가 이루어졌다. 6월에는 또 어떤 생산자가 우리와 함께 장날을 펼칠지 기대된다. **▲**

구명숙 ● 이전에는 조직활동을 하며 조합원을 만났었지만
이젠 매장에서 조합원들과 만나느, 하루의 거의 전부를 매장에 쏟고 있는 반포매장 점장.



'창 재쟁 창쟁'

팽파리 소리가 높이 울렸다.

여성민우회 생협 반포매장이 봄의 새싹처럼 고개를 내밀고 솟아오른 것이다.

그 동안의 많은 애쓴 날들과 애쓴 손길들이 거름이 되어 분명 쑥쑥 자라줄 '씨앗' 인 것이다. 복작거림이 좋았다.

반듯하게 채비를 한 생활재들과 함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예전엔 나도 말 한마디 할 필요 없는 인터넷 장보기를 이용했다. 나만의 닫힌 공간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매장은 만나고,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이라 할 수 있었다. 생활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열린 광장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반포매장은 제 역할을 멋지게 해낼, 많은 좋은 것들을 되살릴 참다운 광장으로 가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본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활동가로 이름 지어진 나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 공간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광장이 된다는 것에...

느낀 만큼 열심히 배우고 활동해서 더 필요한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더 잘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열어놓아야겠다. **▲**

박영수 ● 방배동 집에서 매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반포매장에서 오전 상근을 하고 있는 새내기 활동가.



베트남 여행이야기

수달, 여진 ●



우·행·가(우리 공부해서 여행가요)는
지난 해 11월, 베트남 여행을 꿈꾸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원 소모임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여행지에 대해 공부하며
함께 여행계획을 세웠는지요?

7월 12일, 드디어 우·행·가 1기가
베트남을 향해 출발합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시도!

우·행·가의 여행을 응원하며 지켜봅니다~!

여행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묘한 긴장감을 가져다준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상쾌한 바람과도 같은 여행은, 그 상쾌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소한 것들과 대면해야 하고, 그 대면의 순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마감된다.

도미토리에 묵을 것인지, 돈을 더 주고 좀 더 좋은 숙소를 정할 것인지, 음식은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 자연경관을 보며 더 즐길 것인지, 건축물이나 미술관을 보며 여행을 즐길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등등. 어떤 여행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가는 개인의 기호와 아주 밀접한 문제이기에,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 나와 다른 여행의 기호와 마주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의 여행 기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며 '공동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여행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좋은 여행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유로움과 긴장감, 그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던 그 '누군가'가 아닌 아주 생소한 '누군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여행을 하면서 싸우지 않기로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

우행가(우리 공부해서 여행가요)는 무엇을 믿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놀라울 뿐이다. 아니면 그러한 것은 별 것 아니라는 배경에서 시작했던 걸까? 어쩌면 여행을 갔다 와서 모임이 해체될 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여행지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과정은 여행의 기호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좁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 것 같다. 공부를 통해서, 여행할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와 인식을 맞추어 갈 수 있으니 말이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쌀국수가 떠오르고, 모 항공사 로고 기억되는 곳, 간혹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성차별적인 현수막 속에서만 존재하던 베트남. 그러나 우행


가는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기억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 새로운 기억들로 여행의 루트를 짜기 시작했다.

'전쟁과 함께 살아 왔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베트남 전쟁의 역사는 1000년에 가깝다.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가까운 근·현대에는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과 전쟁, 식민지배 속에 있었던 베트남. 그런 역사를 가진 베트남 사람들은 '도이머이(쇄신정책)'라고 해서 '더 많은 국가와 손을 잡자'라는 평화·화해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긴 전쟁 피해를 가진 국가가 '평화와 화해' 정책을 먼저 내놓았다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한다.

긴 전쟁의 역사 때문인지 도시마다 잘 만들어진 '전쟁박물관'이 많이 있다고 한다.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하고 가는 마당에 이를 여행루트에서 빠뜨릴 수 없다. 여러 도시에 있는 것 중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호치민시의 전쟁박물관과 여성박물관으로 호치민시 여행의 하루일정을 결정했다.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구찌터널(전쟁시기에 베트남사람들이 숨어서 지낸 곳)도 베트남 역사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지 당첨!

공부를 하면서 가보고 싶었던 곳은 위령비(미국의 침략전쟁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위령비를 마을에 세웠다고 한다. 보통 위령비에 사람이름을 적고 누구 외 몇 명... 이런 식인데, 베트남에서는 무명씨 30명이면 무명씨, 무명씨... 이렇게 서른 번을 써 놓는다고 한다.)가 있는 마을인데, 그러한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여행 루트에서 아쉽게 제외되었다.

우리의 여행 경로가 꼭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 역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다. 나짱이라고 하는 멋지구리한 해변도시에서 유유자적 해 보고, 베트남 속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호이안이라는 도시의 유명한 갤러리도 둘러고 수공예작품도 구경할 것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롱베이만에서 배도 타면서 유람할 것이다.

공부해서 여행을 가는 건, 그저 여행지에 발자국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더욱 친숙하게 경험하고 싶어서이다. 돌아올 때에는 베트남과 친구가 되어있기를 꿈꾸어 본다. 



우·행·가·의 베트남 여행계획

7월 12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하노이, 하롱베이, 다낭, 호이안, 나짱, 호치민을 둘러보고 22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행가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신청 및 문의 : fioretto@hanmail.net (수달)

지 부 소 식

www.womenlink.or.kr

고양여성민우회

대안교육 소모임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갈등하는 부모들이 만나 함께 길을 찾아보는 소모임을 진행합니다.

- 대상 : 주업동에 거주하는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인 내외
- 일시 : 5월 15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 장소 : 고양여성민우회생협 사무실
- 진행 : 8회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6/5(3회) : 아이교육, 부부호흡이 중요하다
- 6/12(4회) : 눈높이 대화법
- 6/19, 26(5·6회) : 대안교육 따라잡기-방법론 1·2
- 7/3(7회) :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 7/10(8회) : 대안, 지역 속에서 발견하다

가족대화 훈련 소모임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과는 달리 말로 상처를 주고곤 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로운 대화법을 연습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 일시 : 미정
- 장소 : 생협사무실
- 대상 : 5학년 이상 자녀를 둔 어머니 7명
- 문의 : 918-9774 (담당자 이경나)

체험식 거리 성인권 교실

- 일시 : 6월 2일(토) 오후2시~5시
- 장소 : 일산구 라페스타거리
- 프로그램 : '나의성평등지수는?' 외 9개
- 참여하시는 분은 예쁜 홍보물, 성폭력 예방지침서, 생리주기 팔찌를 드립니다.
- 자원봉사학생 선착순 20명 (☎907-1003)

홍성 오리입식행사 안내

- 일시 : 6월 9일(토) 오전 8시
- 출발지 : 생협매장 앞
- 참가비 : 조합원 15,000원 / 비조합원 20,000원

밤마실 '위편삼절'

저녁 상 물리고 서둘러 나와 옆구리에 책 끼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한시적인 모임으로 5회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5명이상일 경우 진행)

- 내용 : 1회 부의 법칙
2회 부자엄마 경제학
3회 책 아저씨네 작은 커피 집
4회 사다리 건너차기
5회 동네 철물점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
- 문의 · 신청 : 918-9773

2007 고양여성민우회학고

의사소통을 통한 건강가족 만들기

'진정 통~하였나?'

2007년 상반기 고양여성민우회학고는 한국여성의 삶과 가족구조 이해를 통해 여성이 처한 현실과 나의 삶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습득으로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일시 : 6월 13일부터 매주 수 · 목 오전 10시
- 장소 : 본회 교육장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마감
- 프로그램
- 1강(6/13) : 내가 결혼을, 결혼이 나를 (강사 : 이진아)
- 2강(6/15) : 대화가 필요해? 연습이 필요해 (강사 : 김순태)
- 3강(6/20) : 협박? 협생! 즐거운 가족회의 (강사 : 고보경)
- 4강(6/22) : 이제 남편과 정통(淨通)▶正統할 때 (강사 : 강시현)
- 5강(6/27) :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강사 : 이진아)
- 6강(6/29) : 커뮤니케이션 달인 되기 프로젝트 (강사 : 이진아)

고양여성민우회 하루 밥집

아름다운 밥상,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일시 : 6월 16일(토) 오전11시~오후7시
- 장소 : 라페스타 B동 4층 청송얼음막걸리

광주여성민우회

6·7월 민우들모임

- 6월 : 매실따기 체험(순천 계월마을)

- 7월 : 식물원 체험(담양 한백꽃농원)

자기만의 서사쓰기 소모임

여성 자신의 지난 삶을 의미화하고 나만의 서사를 써 봅니다.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여성역사해설사 양성교육

- 일시 :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 내용 : 여성의 눈으로 본 여성역사 발굴 및 여성역사 해설을 위한 교육

다솜누리 문화체험

- 일시 · 장소 : 6월 9일(토), 장소 미정
- 내용 : 입소자들의 심 쉼 재미있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체험 여행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한여름밤의 작은 만남

- 일시 : 6월 15일(금) 저녁 6시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 내용 :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6월 정책포럼

- 일시 : 6월 20일(수)
- 장소 : 광주여성민우회 교육실
- 내용 :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남녀공학

2007 여성주간 여성대중강좌

- 일시 · 장소 : 7월 3일(화) 예정, 장소 미정
- 강사 : 오한숙희(여성학자)

군포여성민우회

성매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강좌

- 일시 : 6월 11일(월) 오전10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상담공부모임

- 일시 : 6월 13일(수)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환경강좌

- 일시 : 6월 중

성교육공부모임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성매매예방캠페인

- 일시 : 7월 3일(화)
- 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앞마당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민우여성학교

- 일시 : 5월 28일(월)부터 6월 18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6:30
- 장소 : 남서여성민우회 교육장
- 내용 : 여성주의 강좌, apt교육, 문화탐방

남서민우회 회원 만남의 날

- 야호! 즐거운 만남의 날 우리 함께 놀아요.
- 일시 : 6월 5일(화)

서울남부여성민우회

회원과 함께 하는 일일호프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재정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엽니다.

- 일시 : 6월 3일(일) 낮12:00~밤12:00
- 장소 : 서울남부여성민우회 지하 호프 카스

6·7월 신입회원만남의 날

- 일시 : 6월 7일(목) 오전10:30
7월 5일(목) 오전10:30
- 장소 : 서울남부여성민우회
- 내용 : 환경수세미 뜨기, 생활재 이야기

생산자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및 시식회, 기꺼이 불편해지기 거리 캠페인

팔당 생명살림 생산자와 함께하는 유기농산물 시식 및 직거래 장터입니다. 시식회와 기꺼이 불편해지기 거리 캠페인을 함께 합니다.

- 일시 : 6월 8일(금) 오후1사~5시
- 장소 : 일원동 대치아파트

팔당 생산자 견학

깨끗한 팔당호에서 물을 지키며 친환경농업을 하는 생산자 분들을 만납니다.

- 일시 : 6월 9일(토) 오전9사~오후5시
- 장소 : 팔당 송촌리 농장

6·7월 회원 만남의 날

나와 함께 우리가족 몸 바라보기 1·2탄

내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내 몸을 다룬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몸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가족의 몸도 새롭게 보는 시간입니다.

- 1탄 - 6월 14일(목) 오전10:30
- 2탄 - 7월 12일(목) 오전10:30

회원수련회

- 일시 : 7월중
- 내용 : 회원과 함께하며 힘모으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끝이 아닌 시작, 완결 - 내 안의 나를 만나다

- 일시 : 5월 29일(화)~6월 19일(화) 매주 화·목 오전10사~12시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 프로그램
 - 1강(5/29) : '중년'을 디자인하라
강사 : 박여진(한겨레 칼럼리스트)
 - 2강(5/31) : 기, 운명, 행복 만들기
강사 : 설영생(참나찾기 수련원 원장)
 - 3-4강(6/5, 7) : '중년', 아직 낯설은...
강사 : 황은영(자성장연구소 샘물 대표)
 - 5강(6/12) : 생애주기 그리기
강사 : 이희숙(서울여대 강사)
 - 6-7강(6/14) : 내공훈련
강사 : 로리주혜(춤마네 부대표)
 - 8강(6/19) : 지역에서 희망 나누기
강사 : 윤정숙(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위풍당당, 그녀들의 페달밟기

자전거 타고 중랑천 달리기

- 일시 : 6월 2일(토) 오후2사~4시
- 장소 : 중랑천 녹천교 아래에서 출발

위풍당당, 그녀들의 페달밟기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

- 일시 : 6월 9일(토) 오전10사~12시
- 장소 : 도봉구청 앞 광장
- 내용 : 관련 내용 부스 및 거리 캠페인 (도봉구청 앞→방학사거리→선덕사거리→도봉구청 앞)

환경과 나눔을 생각하는 '민우 되살림 장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들을 모아서 재활

용 장터를 엽니다. 수익금은 「민우사랑병(가칭)」이웃 여성가장과 아동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데 사용됩니다.

- 일시 : 6월 22일(금) 오전1사부터
- 장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매장 앞

도봉구 여성리더의

평화적 소통 능력 키우기 워크샵

- 일시 : 7월 5일(목) 오전10사~오후4시
- 장소 : 우이동 봉도수련원
- 내용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적 이해, 평화를 만드는 말하기 듣기, 일상의 갈등해결을 위한 관점과 기술
- 대상 : 도봉구내 여성 40여명 (자활후견기관 프로그램 참가자 20여명)
- 참가비 : 5,000원

완경 거리 축제

- 일시 : 7월 7일(토)
- 장소 : 창동청소년수련관 광장
- 내용 : 완경증후군 대처하기, 완경에 대한 잘못된 상식 알아보기, 나이듦에 대하여

서울동북여성민우회·생협 활동가 확대 워크샵

- 일시 : 7월 12일(목)
- 장소 : 직동 수련원
- 내용 : 동북민우회 활동 점검하기

원주여성민우회

변화하는 시대, 가족을 말하다

- 장소 : 중앙동 밝음신협 2층
- 1강 : 6월 12일(화) 오전10시
영화<쇼킹 패밀리>상영과 연출자와의 대화
- 2강 : 6월 20일(수) 오전10시
가족, 허물기와 다시 쌓기(강사 : 유은주)
- 3강 : 6월 26(화) 오전10시
동상이몽-부부대화, 여성주의로 갈등이해하기
(강사 : 이향림(한알 심리예술센터))

여성 노동의 현실과 대안

- 1강 : 6월 13일(수) 오후7시
여성의 일-선택인가 권리인가?
(강사 : 박가남(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2강 : 6월 19일(화) 오후7시
취업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의 문제

(강사 : 강이수(성지대학교 교수))

- 3강 : 6월 28일(목) 오후7시
전업주부는 집에서 논다?
(강사 미정)

한부모 여성의 아름다운 비행

- 1강 : 6월 14일(목) 오후7시
이혼 및 사별후의 자녀양육에
대하여 (강사 : 이남숙)
- 2강 : 6월 21일(목) 오후7시
한부모의 성과 재혼에 대한 이
해 (강사 : 한혜규(목동가족치료
연구소))
- 3강 : 6월 26일(화) 오후7시
한부모 관련 법과 제도
(강사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인천여성민우회

단독비행

- 일시 : 6월 9일(토)~7월 8일(일)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 내용 : 표현예술을 통한 자기
성찰 I, II, III / 한부모로서의 삶
나누기 / 가족 캠프

민우체험학교

- 일시 : 6월 23일(토)

민우문화교실

- 일시 : 6월부터 상시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 내용 : 원예치료, 유리터믹스,
민화그리기, 웃음치료, 기전무

재정사업(밥집)

- 일시 : 7월 13일(금)
- 장소 : 부평구청 식당

회원의 날

- 일시 : 7월 28일(목)
- 장소 : 인천여성민우회 교육장

진주여성민우회

창립10주년기념수련회

- 일시 : 6월 9일(토)
- 장소 : 미정

논개제 여성노래한마당

- 일시 : 5월 27일(일) 저녁7시
- 장소 : 진주성야외공연장

춘천여성민우회

회원만남의 날

춘천여성민우회 창립기념일에 맞
춘 회원만남의 날! 진한 수다와
기꺼이 불편해지기 사업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시 : 6월 4일(월)
- 장소 : 김화자 회원님 덕

달팽이 공부방 역사탐방

의병마을 체험

- 일시 : 6월 9일(토)
- 장소 : 춘천 의병마을

2007 여성문화제

춘천여성들을 위한 문화 한마당!
여성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6월 23일(토)
- 장소 : 춘천 고슴도치섬 내 예부룩

지역 여성 리더 교육

지역이 뜬다 주인이 된다

- 일시 : 7월 첫 주 예정
- 내용 : 지역 내 여성리더들을 위
한 교육, 지역의회 체험의 장 등

민우어린이 인권캠프

곰꾸는 달팽이

어린이 인권에 대하여 달팽이친
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어
린이 캠프입니다.

- 일시 : 7월 마지막 주 예정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
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
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
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minwoe@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금순 김명숙 박진숙 황민숙 임영숙 박정옥 정영수 김애숙 최양례
김완정 유수주 천성임 이재임 최미애 곽 도 채은진 전의삼 김경숙
장미희 이승영 임정남 양복희 김소담 김미랑 황순화 이예진 김수정
윤채근 현주화 손석현 오호창 이한실 정미영 임영빈 임현희 최병권
이희선 정순자 정수연 신원미 한금례 신주진 강영희 김 희 전소영
문경선 유가미 김혜미 조현희 김희정 김미주 박하윤경 박현진 이은옥
강연아 이인옥 이상덕 신창기 김희수 최승환 조윤경 김명숙 고현진
이수진 조인섭 최명숙 이미화

(2007년 3월 24일~5월 23일)

워풍당당 그녀들의 페달밟기2



4월에 진행했던 <자전거 교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이어, 6
월부터는 <자전거 번개>가 시작됩니다. 매달 하루는 페달을 밟
으며, 건강한 나와 지구를 만들어가요. 참가하신 분께는 예쁜
티셔츠를 받을 수 있는 행운도 드립니다.

※ 늦게 신청하시면 사이즈에 맞는 티셔츠가 없을 수도 있어요.

6월의 자전거 번개

- 참가비 : 자전거 대여비(시간당 3000원)
- 문의 : (최강 회원팀)락소녀, 여진 friend87@womenlink.or.kr
- 신청은 6월 13일(수)까지 받아요!

6월 16일(토) 날 좋은 오후 4시 독섬유원지(지하철 7호선)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성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날들이 스무해가 되었습니다.
 스무살 민우회는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이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꿈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민우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 길을 여는 사람들

- 나눔세상 길잡이 : 10만원 이상 후원
- 웃음세상 길잡이 : 100만원 이상 후원
- 평화세상 길잡이 : 30만원 이상 후원
- 행복세상 길잡이 : 300만원 이상 후원
- 평등세상 길잡이 : 50만원 이상 후원
- 희망세상 길잡이 : 500만원 이상 후원

※ '길을 여는 사람'이 되시면 원하는 사진이
 새겨진 '희망조각'을 드립니다.



후원신청 : 02-737-5763 <http://20.womenlink.or.kr>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3-25-0011-869 (한국여성민우회)

우리은행 064-121846-13-403 (한국여성민우회)

농협 085-01-106544 (한국여성민우회)

※ 이 후원금은 여성운동과 민우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회원문의 02-737-6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 02-739-8871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887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 02-739-8871 상담 02-739-1366~7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팩스 02-3411-3519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상담(노동) 033-254-2155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e@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